

노동정책연구
2023. 제23권 제1호 pp.183~190
한국노동연구원

서평

지위 없는 계약? : 일터민주주의의 전제조건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노동법의 지식사회학

『Democracy at Work : Contract, Status
and Post-Industrial Justice』
(Ruth Dukes · Wolfgang Streeck,
Polity Press, 2023)

박명준*

인류는 자본주의와 함께 민주주의를 키우며 산업화와 근대화의 시간을 겪어왔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일정하게 서로 친화성을 지니면서도 상호 상반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극대화한다는 이상을 표방했으나, 실상 자본주의의 포기는 민주주의의 발전마저 저해했다. 민주적 자본주의를 어떠한 식으로 구성해낼 것인가는 냉전체제 이후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선진산업국들이나 후발공업국가들이 지닌 보편적 과제였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영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자리(work)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유독 ‘일자리에서(at work)’ 갈등이 빈발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가치가 거기에서 첨예하게 충돌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자리에서 자본주의의 지향과 민주주의의 지향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해 낼 것인가는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모순적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학 박사(mjnpark@kli.re.kr)

기획의 핵심과제다.

최근 이러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강하게 권하고 싶은 좋은 책이 출간되었다. 엔서니 기든스가 설립해 유명한 영국의 폴리티(Polity) 출판사에서 2023년 출간한 책 『Democracy at Work: Contract, Status and Post-Industrial Justice(일자리에서의 민주주의: 계약, 지위 그리고 미래의 산업정의)』이다. 저자는 노동법학자인 루스 듀크스(Ruth Dukes, 글래스고대학)와 정치경제학자이자 노동사회학자인 볼프강 슈트렉(Wolfgang Streeck, 막스플랑크사회연구소)이다. 일터의 민주적 구성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이 책은 현 시기에 매우 시의적절하면서도 탁월한 통찰을 지니고 있기에 노동정책연구 독자들의 필독을 권하고 싶다. 노동개혁에 임하는 관료들과 정책가들, 노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이고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언론 종사자들 모두 2020년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문제를 이해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데에 있어 이 책은 매우 유익한 통찰과 지식을 제공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자리에서의 민주주의 혹은 일터민주주의라는 제하의 책들이 그간 없었던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공동결정제를 깊이 연구해 호평받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노사관계학자이자 코넬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로웰 터너(Lowell Turner)의 1990년대 초반 저작도 『Democracy at Work』이었으며, 이 역시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Turner, 1993).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작업장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었고,¹⁾ 오늘날 일터혁신에 관한 관심의 지속도 일터에서의 노동의 참여에 대한 관심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일터민주주의 과제를 함께 지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터너의 작업이 일터에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노동의 참여를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서였다면, 듀크스와 슈트렉의 이 책은 일터민주주의의 전제조건에 대한 역사적 해부를 수행하면서 미래의 과제를 던지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

책의 부제에 언급되어 있듯이 민주적인 일자리에서는 ‘계약체결’과 ‘지위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에서 사회생활은 대개 고용(employment)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1) 그 대표적인 책으로는 박준식(1996)이 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성과작업장혁신(KOWIN)센터 같은 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실천적으로 도모하려는 2000년대의 싱크-앤-두(THINK & DO) 탱크였다.

의미한다. 어떤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고 어떤 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매개로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계약과 지위의 이러한 관계는 일자리란 사회구성원에게 있어서 단지 경제학자들이 말하듯 “투자를 얼마나 하면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진다”라는 식의 사고 이상의 무거운 의미를 지님을 의미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젊은이가 학교생활을 마치고 취직을 할 때 ‘사회에 진출한다’라는 표현을 썼다. 당시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은 그가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즉 사회 어딘가 아랫단에 소속되어 어떤 식의 지위를 최초로 부여받음을 의미했다. 고용계약이 지위 부여와 정확히 일치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해 갈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었다.

오늘날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난무하고 변변한 정규직 일자리가 모자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사회진출을 제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에 내재한 계약체결과 지위부여의 결합관계가 약화 내지 탈구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계약만 있지 지위가 없는 일자리들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양자가 동시에 결합되어지는 일자리들의 비율은 낮아지게 된 것이다. 일자리에 대한 젊은 세대의 태도변화가 합리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일자리들에서 계약과 지위의 관계 설정이 변화한 사정을 반영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말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일자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낮은 지위만을 강요받는 이들과 여전히 그래도 일자리를 통해 일정한 지위와 그것의 상승기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 간의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관건은 노동자가 스스로 판매하는 노동력의 가격을 (공동)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 대개 노조의 임금교섭의 기회를 통해 - 향유하느냐,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노동보상의 상승과 확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에 있다.²⁾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약의 주체이자 지위보장의 주체로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며 해당 노동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제도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하단부인 2차 노동시장을 이루는 노동자들은 이러

2) 이와 관련해서는 박명준(2022)을 참조.

한 기회로부터 실질적,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그러한 일자리에서 노사상생이나 노사화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많은 사업주들이 스스로를 그러한 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 우리가 노사상생이나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전제로 노사관계 자체가 제도적, 관행적으로 성립이 된 이후의 일이다. 지위는 박탈당하고 계약만 있는 일자리에서 상생을 꿈꾸기는 어렵다. 계약이 있어도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 인격적 계약이 아니라 납품하는 서비스의 단가만 있는 경우, 그것은 이 책 저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산업적 시민권(industrial citizenship)’ 혹은 ‘산업정의(industrial justice)’가 박탈당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 책의 저자들이 스스로 언급하듯이 이 책은 ‘노동법의 사회학(sociology of labour law)’에 관한 것이고, 일종의 ‘노사관계의 사회학’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접근이기도 하다. 그들은 그 핵심고리에 바로 일자리에서의 계약과 지위의 결합방식이 존재한다고 본다. 책은 분량이 많지 않지만 밀도가 상당히 있는데,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일자리에서의 정의, 생산성 그리고 권력」을 제목으로 하는 제2장에서는 주요하게 두 가지 지적 흐름에 천착한다. 하나는 미국의 저명한 노동사회학자 필립 셀즈닉(Philip Selznick)의 1969년 저서 『Law, Society, and Industrial Justice』의 문제의식이며, 둘째는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활동한 법학자 후고 진츠하이머(Hugo Sinzheimer)의 비판노동법학 전통을 2차 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두 흐름이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각각 전후의 미국과 서유럽의 맥락에서 노동자 권리보장과 사용자의 권력행사에 대한 합리적 제약을 산업정의의 시각에서 정당화하며, 민주적 노사관계의 제도적 설계에 끼친 영향을 리뷰한다.

제3장에서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흐름을 짚으면서, 그러한 사고를 한 차원 발전시킨 산업적 시민권(industrial citizenship) 개념이 어떻게 발흥하고 학계와 실천계에 회자되다가 신자유주의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퇴행하게 되었는지를 「The Rise and Fall of Industrial Citizenship」이라는 제하에서 분석한다. 실제로 이 책의 공저자 중 한 사람인 슈트랙은 이 시기에 이론적인 역량을 키우

고 그의 모국인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노사관계 및 산업민주주의 연구를 심화시킨 대표적인 석학이다. 그러던 것이 이른바 ‘신자유주의로의 터닝(neo-liberal turn)’으로, 시대는 유연성(flexibility)이 정의(justice)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퇴행해 갔다. 책의 저자들은 봉건제적 결합, 시민권, 산업적 시민권, 그리고 상업주의라고 하는 시대적 표상을 이념형으로 내세워, 역사적으로 노동을 매개로 한 지위와 계약의 관계설정의 변화를 추적한다. 또한 어떻게 편파적인 권위, 가부장적 전통주의 관계들이 민주적 권위, 정치화, 사회민주주의로 표상되는 질서로 나아갔다가, 재차 시장주의의 권위, 개인화, 신자유주의가 결합된 시대로 변모해 가는지를 추적한다.

책의 저자들이 제2장과 제3장을 집필하는 이유는 오늘날 마치 자유화(liberalization)가 해방(emancipation)으로 간주되는 과도된 현실의 역사특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실천적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이며, 그들은 제4장에서 현재의 노동사회에 나타나는 그러한 경향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진단한다. 대표적인 예로 깃 노동자(gig worker), 아마존 매장의 노동자, 돌봄노동자, 그리고 대학교수직의 경험들에 천착하며, 어떻게 지위 없는 계약이 그러한 일자리들을 횡행시키고 있는지 분석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 저자들은 오늘날 계약만 있고 지위가 사라진 일자리에서 산업적 시민권의 침해, 그리고 산업정의의 상실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직업적 공동체(occupational communities)’에 대해 상상할 것을 촉구한다. 인류가 구축한 강력한 노동이해대변체인 노동조합 역시 결국은 특정 시기에 부합하는 직업적 공동체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저자들은 다양한 인류학적 연구들을 토대로 결국 다양한 조건을 갖는 자리들에서의 정체성과 이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관찰하며, 그가 형식적으로 종속적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노동자로서 집단적 이해대변과 산업적 시민권을 실현해 가는 주체가 되어 꾸리는 직업적 공동체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필자는 평소에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분화가 이 책에서 말하는 지위, 혹은 신분의 분화를 낳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고용을 매개로 부여했던 신분 질서와 그것을 가꾸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기제들의 역사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일자리

에서의 계약을 매개로 지위를 부여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그에 앞선 시대가 있었고, 또 지금처럼 그러한 계약-지위의 관계가 약화되는 시대가 앞으로 전개된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관계들이 형성되고 변화했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0년대에 ‘노동이해대변’이라는, 당시까지 낯설었던 용어를 쓰면서 우리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체들의 역할에 주목하려는 연구를 상대적으로 일찍 도모했던 것도, 분화하는 노동시장에 걸맞는, 새로운 노동이해대변의 방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³⁾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이 계약의 제도적 기반, 행위적 기반으로 작동하던 시대가 저문다면, 분명 새로운 기제를 필요로 할 것인데, 여전히 그것은 매우 산만하고 미약하다. 오늘날 공장법 시대가 아닌 조건에서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혁을 한다고들 떠들지만, 실상은 약화된 노동의 사회적 시민권을 강화시키는 데에 변변한 구상을 내놓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려 하곤 한다.

산업적 시민권(industrial citizenship)이나 이해대변(interest representation) 등의 표현은 필자가 젊은 시절 독일에 유학하면서,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이자 이 책의 공저자 중 한 사람인 볼프강 슈트렉 선생의 글을 읽고 또 수업을 들으면서 자주 눈과 귀에 접했던 단어들이다. 쾰른에 처음 유학을 가서 당시 쾰른대학에 개설된 슈트렉 선생의 수업인 ‘노사관계의 사회학(Soziologie der industriellen Beziehungen)’을 수강했는데, 마침 그 수업에서 그가 진지하게 강조했던 글이 저 유명한 T. H. Marshall의 『시민권과 사회계급(Citizenship and Social Class)』이었다. 복지국가나 정치사회학의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마셜의 글에 대해 그것이 노사관계적으로 갖는 의미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했던, 20여 년 전 강의실에서 슈트렉 선생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슈트렉은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고전과 같은 책 『종업원 평의회(Works Councils)』라는 책의 공저자로서도 이미 일터민주주의와 관련해 1990년대에 획을 그은 연구업적을 낳은 인물이다(Rogers and Streeck, 1995). 독일인으로서 전후 독일이 발전시킨 민주적 제도들이 어떻게 독특하며 그것이 독일의 경제성

3) 해당 연구결과는 박명준 외(2014), 박명준·김이선(2016)으로 출간되었고, 이후 많은 후속 연구들이 노동이해대변에 관한 논의와 실천을 이어갔다.

장과 산업평화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연구하여 그간 노사관계와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엄청난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⁴⁾ 쾰른의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소장으로 봉직하며 유관 연구의 주옥같은 결과들을 남겼고 또 동료들과 교류하며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70대의 고령을 무색케 할 정도로 현대 금융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모순을 치열하게 파고들며, 자본주의의 현재와 같은 작동 방식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을 때론 『New Left Review』 등의 급진적인 매체를 통해, 때론 단행본 저작을 통해 통렬하고 과감하게 쏟아내고 있다.⁵⁾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고용관계를 수용하고 노동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된 데에는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선구적인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책 한 권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자들이 제5장에서 강조하듯이 새로운 직업공동체의 구상을 통해 새로운 산업정의 실현의 길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일자리에서의 민주주의(democracy at work)를 복원해 내어 20세기 노동자들이 한때 향유한 산업적 시민권과 산업정의를 21세기 신자유주의 이후의 시대에도 구축해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는 것을 주창하는 것이다.

공간을 초월하여 이러한 지성의 울림은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강하게 전달된다. 결론의 적합성이나 추상성과 무관하게, 노사관계학과 노동법과 관련한 역사적 노작들과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진화한 산업적 시민권의 양상을 한눈에 최고의 지적인 언어를 통해 집약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는 점 하나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하겠다. 이 책이 간학제적으로 널리 읽히고 우리 사회의 일자리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이들의 공통의 문법이 된다면 정책과 실천의 타당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4) 대표적으로 Streck(1992) 등을 들 수 있다.

5) 대표적으로 Streck(2016) 등이 있다.

참고문헌

- 박명준 외(2014). 『노동이해대변의 다양화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형성과정』.
한국노동연구원.
- 박명준 · 김이선(2016). 『주변부 노동자 이해대변을 위한 비노동조합적 시도:
준노조의 한국적 개념화를 위한 일분석』. 산업노동연구 22 (2): 35~77.
- 박명준(2022).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노사관계의 균열 및 갈등: 해법으로서
비제도적 사회적 합의 모델』. 노동리뷰 2022년 11월, pp.9~26.
- 박준식(1996). 『생산의 정치와 작업장 민주주의』. 한울.
- Rogers, J. and W. Streeck(1995). *Works Councils : Consultation, Representation,
and Cooperation in Industrial Rela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urner, L.(1993). *Democracy at Work : Changing World Markets and the Future
of Labor Unions*. Cornell University Press.
- Streeck, W.(1992). *Soci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 Studies of
Industrial Relations in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SAGE Publications.
- _____(2016). *How will Capitalism End? : Essays on a Failing System*. Verso.